



(주)하림 산란종계 수입관련 반대 성명서 발표

본회는 (주)하림의 산란종계 수입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하림은 양돈산업 진출 등 축산 거대화 기업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최근 산란종계로 삼계탕용 병아리를 생산하겠다는 이유로 산란종계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한 채란분과위원들의 요청으로 산란종계 수입 진위여부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양계관련 통계자료 조사사업

용역업체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선정



본회는 지난 1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양계관련 통계자료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준동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는 양계관련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양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양계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업체가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조사사업 내용은 육계, 산란계, 종계분야로 기본조사, 생산분야, 질병분야, 유통분야, 제도분야 등으

로 나뉘어 조사되며, 8개월간 1억8천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된다.

이후, 22일 열린 회의에서 한국축산경제연구원과 (사)한국유통혁신연구원(건국대학교 소속) 등 두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의 통계자로 조사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채란분과위원회

수도권 난가, 실거래 발표키로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는 지난 7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난가 조사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지역간 차이를 감안해 전국 발표가격을 지역별로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분과위원들은 난가 모니터링 위원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8일 계란유통구조개선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기존 난가 모니터링 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키로 했으며, 추후 적합하지 않은 모니터링 위원에 대해서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조사 양식을 구체화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채란분과는 (주)하림의 산란종계 수입 움직임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산란계 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성토했고, 하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자조금 참여 활성화 노력 기할 것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7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자조금 거출 향상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육계분과는 자조금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계열사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각 지역 지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육계분과는 자조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자조금 미참여 농가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한 협의를 협회장과 분과위원장, 지부장 등이 맡아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총 11개 지역에서 지역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 설명회 자리에서 농가들이 자조금납부동의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종란판매 표준계약서 관련 논의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평택 소재 가보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종란판매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최성갑 위원장은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현재 납품계약이라는 것이 표류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무조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빛을 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 만큼, 협회로 단합하여 전체적으로 납품거부운동을 벌이는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계분과는 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추어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날 논의를 일단락했다.

한편, 종계분과는 종계업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와 관련하여, 가축공제제도의 의무화와 질병특약 삽입 등에 따라 농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질병특약에 난계대 질병뿐만 아니라 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전달키로 했다.

다한영농조합법인-양계협회

2009년 다한 한마음 체육대회

다한영농조합법인(조합장 이만형)은 지난 6월 26일 본회와 화합을 다지기 위한 '다한-양계협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하남 소재 고골산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준구 전 양계협회장을 비롯해, 정광면 전 이천채란지부장, 대한영농조합법인 회원농가, 축산언론사 양계담당 기자 등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영농조합법인 이만형 조합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벌써 11년째 양계협회와 인연을 맺어온 대한영농조합은 매년 단합대회 겸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35년간 양계인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양계협회가 앞으로도 양계인의 만행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거출향상을 위한 설명회 개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지난 5월부터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경기도 일대 등 육계자조금 거출 향상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6월 영광, 양평, 부여, 포천, 나주, 정읍, 대구, 천

안, 논산을 비롯해 7월에는 남원, 정읍, 무안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사업의 필요성과 거출방법, 효과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농가들은 육계자조금납입동의를 제출하는 등 납부 의사를 표했고, 자금 조성으로 육계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의무자조금 설명회 개최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6월 30일 천안지역을 시작으로 8개 지역(천안, 예산, 홍성, 이천, 광주, 용인, 원주, 연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란계자조금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무자조금의 거출 절차, 거출이유, 영수증 받기 캠페인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산란계자조금은 농가의 노계출하시 도계장, 중간상인에게 영수증을 받는 캠페인을 벌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간상인과 도계장의 자조금 거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호 관리위원장은 자조금설명회를 매달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설명회에 참석한 농가들이 그 지역의 자조금 거출 홍보 전도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회 · 지부 소식

하계 단합대회 개최

예산육계지부(지부장 조복형)는 지난 7월 16일 덕산면 소재 삼가리계곡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예산시청 축산과 관계 공무원, 군의원, 축산단체장 등 관계인사를 비롯한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조복형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축산 관련산업이 점차 세계화, 개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지역 육계인들의 결집을 통한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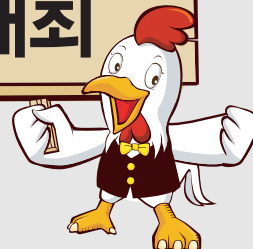
천안육계지부
현판식

천안육계지부(지부장 김의겸)는 지난 7월 22일 천안시 북면 소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천안육계지부는 22명의 회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 양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가졌다.

김의겸 지부장은 “사무실을 거점으로 지역 회원간의 상호 정보 교환과 복지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9 전국양계인대회 개최

양계인의 단합을 통한 협회 활성화와 양계농가 경영안정 및 안전한 먹을거리(닭고기 · 계란) 실현을 위해 전국 양계인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전국의 양계농가 및 관련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9. 9. 18(목) 12:00 ~ 21:00
- 장소 | 상주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주소 : 경북 상주시 계산동 59번지 전화 : 054-533-5117)
- 참여대상 | 약 5,000여명(전국의 양계인 및 양계관계자)
- 주최 | (사)대한양계협회
- 주관 | (사)대한양계협회 경북도지회 상주시지부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 경상북도 · 상주시 · 농협중앙회